

4. 탁발선비의 본격적 정복왕조: 이한치한책 (以漢治漢策)

탁발선비(拓跋鮮卑) 북위(北魏)

건국 설화에 의하면 탁발선비 선조는 눈강과 대흥안령산맥 사이 북만주에서 부족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200년경쯤 남 흉노가 살던 땅으로 이주했고, 258년에는 성락(盛樂) 부근에 정착했다. 탁발 부족은 당시 선비 부족들 중 가장 서쪽에 정착해 가장 유목민적이었고, 시이지안(什翼犍 r.338-76)이 338년에 대(代) 왕국을 세웠다.

341년, 시이지안은 전연 왕 모용황(r.333-49)의 누이 동생인 처가 죽자 황(銚)에게 또 다른 공주를 처로 삼도록 보내 달라고 청했다. 모용황은 그 대가로 말 1천 필을 요구했다. 그러자 시이지안은 아주 무례한 태도로 거절을 했다. 343년, 모용황이 태자 준(r.349-60)과 모용평(評)에게 군사를 주어 탁발선비족을 공격하게 하자 시이지안은 부족을 이끌고 산속으로 달아나 숨었다. 344년, 시이지안은 모용황의 딸을 신부로 맞이해 오도록 동생 질(秩)을 연 나라에 보냈다. 몇 달 후, 모용황은 사신을 보내 자기한테도 공주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시이지안은 자신의 누이 동생을 황에게 시집 보냈다.¹ 370년, 모용선비 전연은 티벳족 계통의 전진(前秦 351-94)에 의해 멸망되었다. 376년, 전진의 부견(苻堅 r.357-85)이 군대를 보내 대(代)를 공격했을 때 시이지안은 무리를 이끌고 산속으로 달아나 숨어 있다가 죽었다. 탁발 부족은 385년까지 전진의 지배를 받았다.

북 중국 전체의 새로운 주인이 된 부견은, 동진(東晉 317-420)을 정복하려고 대규모 전쟁을 벌였지만, 383년의 비수(淝水大戰) 전투 패배는 전진 왕조를 재기 불능으로 만들었다. 부견이 2년 후인 385년에 죽자, 모용선비 후연(386-408), 서연(385-94), 남연(398-410) 등이 부활했고, 탁발선비족은 재빨리 그들 본거지인 성락으로부터 병주(并州)로 침입하기 시작하였다. 시이지안의 손자인 탈발규(珪 b.370 r.386-409)는 386년에 위

¹ 魏書 卷一 序紀 第一 昭成皇帝諱什翼犍立...烈帝臨崩...建國二年[339]...慕容元眞妹爲皇后...四年[341] 皇后慕容氏崩...七年 [344] 遣大人長孫秩迎后慕容氏元眞之女於境...慕容元眞...求交婚...以烈帝女妻之
魏書 卷二 太祖紀 第二太祖道武帝 諱珪 昭成皇帝之嫡孫...皇帝之子...年六歲昭成崩...苻堅遣將...國衆離散
資治通鑑 卷九十七 晉紀十九 建元元年 [343]...代王什翼犍復求婚於燕 燕王銚使納馬千匹爲禮 什翼犍不與又倨慢無子婿禮...銚遣世子儁 帥前軍師評等 擊代 什翼犍帥衆避去 Schreiber (1949-55: 473) 참조.

왕이라 칭하고, 398년에는 만리장성을 넘어 산서성 북부 지역을 차지하여 평성(平城, 오늘날 날의大同)에 수도를 정했다.²

탁발 북위(386-534)는 모용선비 병사들을 자신의 군대에 흡수하고, 전연이 만들어낸 이원통치 체제를 개량 해, 비록 만주 대륙에서는 요동 조차도 차지하지 못했었지만, 439년에는 북 중국 전체를 통일했고, 본격적인 정복왕조를 수립할 수 있었다.

선비 부족(國人)을 격리하고, 한족을 한족으로 다스리는(以漢治漢) 체제

시조 탁발규는 선발된 선비 부족의 가구들을 대규모 단위 군부대와 유사한 8개의 인위적 부족 집단으로 재편성 한 다음, 수도 평성 주변에 정착시켜 그 구성원 장정들이 정복 원정에 즉시 동원될 수 있는 세습적 황제 직할 군대를 구성케 했다.³ 기타 부족들은 중원의 한족 농민과 격리된 북부 국경에 근접한 초원지역에 거주하면서 국경 수비 공동체를 구성했다. 이들 부족민(落)들은 모두 국인(國人)이라 칭하며 부족 고유의 전통에 따라 별도의 조직으로 다스렸다. [A.4.]

탁발선비 통치자는 일찍이 396-9년 기간 중에 이미 전통적 중국식 관료제도를 완비했었다.⁴ 북 중국 평원의 피정복 한인 밀집 거주 지역(戶)은, 고위 선비 귀족들의 감독하에, 대지주 호족(豪族) 출신 한족 지방 관리들을 통해 중국식으로 다스렸다. 한족 농민이 한족 지방관리 이외의 선비족 군인이나 중앙정부 관리를 접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⁵ 모용선비가 그 원형을 만들고, 탁발선비가 개량한 2원적(二元的) 국가 통치조직은 후대의 모든 정복 왕조의 귀감이 되었다. 만주는 모든 정복 왕조를 낳고 키운 산실이며 요람이었다.

² Barfield (1989: 106)

³ Lewis (2009b: 79-80, 148) 참조. 魏書 卷二 太祖紀 第二 天賜三年 發八部 五百里內男丁築壘南宮

⁴ 魏書 卷二 太祖紀 第二 皇始元年 [396] 初建臺省 置百官 封拜公侯 將軍刺史太守 ...天興元年 [398] 詔尚書吏部郎中鄧淵典官制立爵品 定律呂協音樂...撰郊廟社稷 朝觀 饗宴之儀 三公郎中...定律令 申科禁太史令...天興二年 [399] 初令五經群書各置博士 增國子太學生員三千人 Klein (1980: 189) 참조.

⁵ Barfield (1989: 118-119, 122), Eberhard (1965: 4-5, 127), Klein (1980: 78, 95-6, 107, 110-2, 123-5), Dien (1990: 5), Fairbank and Goldman (1991: 104), Mao (1990: 96-7), Wright and Twitchett (1973: 28), Graff (2002: 73, 99-102) 참조.

Han Chinese Collaborator

415년, 북위의 운중(雲中)과 대군(代郡) 지역에 가뭄이 계속되자 탁발사(拓跋嗣 r.409-23)는 평성(平城)을 버리고 중원의 업성(鄴城)으로 천도를 하려 했다. 그러자 청하(清河, 산둥성 임제시) 출신 박사재주(博士祭酒) 최호(崔浩, 381-450)가 간했다: “업성으로 수도를 옮기면 올해의 배고픔은 구제할 수 있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태행산맥 동쪽(山東) 평원의 한족(漢族)들은 우리가 소의 털과 같이 무수히 많다고(牛毛之衆)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병사들이 막상 남쪽 군현(郡縣)에 뒤섞여 살게 되면, 한족들이 우리의 수적 열세를 알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길 것 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같이 북방에 계속 웅거하면서 산동에 흑시 변란이 일어나면 우리 경기병이 내려가 풀과 나무가 우거진 사이에 포진을 해 토벌을 하면 누가 우리의 숫자가 적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족들(諸夏)은 말발굽 먼지의 위세로 다스려야 합니다.”⁶

탁발족 통치자는, 북 중국 향촌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대지주 호족들의 기득권을 보장하고 협력자로 포섭하여, 한족 지역사회 통치질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안정된 농업 생산 환경을 계속 유지 함으로서 다른 유목 민족에 대해 물적 자원 면에서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했다. 동시에, 한족과 격리된 부족의 정예로 황족의 직접 지휘를 받는 대규모 군대를 조직해서, 피정복 한족뿐 아니라 몽골초원의 유연제국을 비롯 해 다른 유목민들에 대해서도 군사적인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한족 지주-호족들은 더 이상 지방 무장세력의 중심이 아니라, 정복왕조의 충실한 통치행정 협력자의 존재로 역할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정복왕조의 통치 이념으로서 외래 종교인 불교를 적극 장려

기원전 1세기경, 전한의 세력이 중앙 아시아로 확장되면서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에 불교가 전파 되기 시작했다. 당시 탁발 북위 지배계급의 전통 신앙인 샤머니즘은 한족 중 무지한 하층민의 미신과 마찬가지로 보였기 때문에 통치자의 종교로 어울리지

⁶ 資治通鑑 卷一百十七 晉紀三十九 義熙十一年 [415] 博士祭酒崔浩...曰 遷都於鄴...非久長之計也 山東之人以國家居廣漢之地 謂其民畜無涯 號曰牛毛之衆...分家南徙 不能滿諸州之地 參居郡縣 情見事露 恐四方皆有 輕侮之心...水土疾疫...今居北方 假令山東有變 我輕騎南下 布藎林薄之間 孰能知其多少 百姓望塵懾服 此國家所以威制諸夏也

않았다. 하지만 유교를 수용한다는 것은 피지배 한족의 문화적 가치관을 수용한 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탁발선비 지배자들은 통치 전략상 외래 종교인 불교를 적극 장려하면서, 자신들의 황제를 부처의 화신으로 미화했다. 477-534년 기간 중, 북위 제국 내의 사찰 수는 6,478개에서 30,000개로, 승려 수는 67,258명에서 2백만 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 한족의 문화 전통을 고수한다는 남조 내에서는 사찰 수가 1,768개에서 불과 2,846개로, 승려 수는 24,000명에서 겨우 82,700명으로 증가 하는데 그쳤다.⁷

Han Chinese Collaborator

북위의 초기에는 한족(漢族) 백성들 대부분이 호족 집안에 붙어서 정부 세금(公賦)의 배를 바치며 살고 있었는데, 급사중(主客給事中) 이안세(李子安, 443-93)가 효문제(孝文帝)에게 상소를 했다: “굶주린 백성들은 유량을 하고 있는데 농지는 대부분 호족들이 비호를 해 주며 점거하고 있습니다(強宗豪族多有占奪). 기존의 농토는 현재 지주들의 소유권을 인정 해 주되(悉屬今主), 마땅히 가난한 백성은 자신의 능력에 걸 맞는 농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更均量 力業相稱). 그리하면 영세한 백성들이 생업을 확보하고(細民獲資生之利), 호족의 능탈로부터 영구히 보호를 받게 될 뿐 아니라(永免於凌奪), 호족 역시 가난한 농민의 토지를 더 이상 탈취할 여지가 없게 될 것입니다(豪右靡餘地之盈).” 효문제는 이를 옳다고 여겨, 485년, 북 중국에 널려있는 정부 소유 황무지를 나누어 균전제(均田制)를 실시했다. 남녀가 장년이 되면 일정 규모의 토지를 배정 받고 늙어 죽으면 정부에 반환하는 제도가 실현된 것이다(身沒則還田).⁸

북위의 균전제: 서위-수-당 부병제의 기초를 제공

5호16국의 혼란기를 겪은 당시 북 중국에는 미개간 토지가 널려있었다. 485년,

⁷ Twitchett and Loewe (1986: 847, 853-7), Wright (1959: 57-9, 60-2), Klein (1980: 124, 130), Wong (2003: 84, 94, 108), Eberhard (1965: 127, 174) 참조.

⁸ 資治通鑑 卷一百三十六 齊紀二 武帝 永明三年 [485] 魏初民多陰附 陰附者 自附於豪強之家 以求蔭庇 陰附者 皆無官役 而豪強徵斂 倍於公賦 給事中李安世上言 歲飢民流 田業多爲豪右所占奪 雖桑井難復 桑井謂古者井田之制 五畝之宅 樹墻下以桑也 宜更均量 使力業相稱 又所爭之田...事久難明 悉歸今主...魏主善之由是 始議均田 冬十月 詔遣使者 循行州郡 與牧守均給天下之田 諸男夫十五以上 受露田四十畝 婦人二十畝 奴婢依良丁 牛一頭 受田三十畝 限止四牛 所受之田 率倍之 三易之田 再倍之...人年及課則受田 老免 及身沒則還田...桑田皆爲世業 身終不還...諸宰民之官 各隨近給公田 有差...賣者坐如律

북위 효문제(孝文帝 r.471-99)는 사유지가 아닌 정부 소유 미개간 토지를 가지고 균전제(均田制)를 실시했다. 경작을 할 수 있는 한족 남녀에게 일정 면적의 농토를 분배해 주고, 현물로 세금을 받다가, 70세가 되면 국가에 반납하도록 했다. 남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았던 북 중국 한족 지주의 사유 토지는 계속 그 소유권이 인정 되었다. 결과적으로 생산이 확대되고, 정부의 조세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균전제는 토착 호족들의 토지 검병 급증을 억제했고, 550년에 서위의 우문태가 부병제(府兵制)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 해 주었다.⁹ 북위가 망한 것은 착취에 시달린 한족 농민이나 사유재산 기득권을 빼앗긴 지주 호족의 반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비족 자체의 내부적 반란에 의한 것이었다.

Wright 와 Twitchett(1973: 25)은 "수 나라는 북위로부터 계속된 일련의 비한족 북 중국 왕조들의 후예로서 중국을 재통일 한 것이며, 탁발 북위가 이미 만들어 놓은 제도가 바로 수와 당 제국들이 채택한 기본적인 군사-재정-행정 제도들인 것이다"라고 말한다. 모용 선비가 그 시제품(原型)을 만들고, 탁발선비가 이한치한(以漢治漢) 원칙을 지키면서 균전제와 불교 이념으로 개량-강화한 2원-통치 제도는, 수-당 뿐 아니라 후대의 요-금-청 등 모든 만주 정복왕조의 귀감이 되었다.

한족 출신 황태후 주도하의 중국화 시작과 북위 정복왕조의 와해

북위 문성제(文成帝 r.452-65)의 황후는 모용씨를 모시다가 북연(409-36)을 세운 한족 풍발(馮跋 r.409-30)의 동생 풍홍(弘 r.430-6)의 손녀이었다. 문성제 사후, 그녀는 황태후의 위치에서 권력을 장악하고(臨朝專政), 465-89년 기간 중, 북위의 중국화(漢化)를 적극 시도했다.¹⁰ 황태후의 조카인 풍씨 한족 여인을 황후로 맞은 효문제(r.471-99)는 중앙정부 관직을 한족으로 채우기 시작했고, 493년에는 수도를 선비족 본 고장에 가까운 평성에서 증원의 낙양으로 옮겼다. 이주한 선비 귀족들은 낙양을 본관으로 하고, 죽은 후

⁹ 資治通鑑 卷一百六十三 梁紀十九 簡文帝... 大寶元年 [550] 十二月 ... 大統三年 文帝復以丞相[宇文]泰 ... 始籍民之才力者 爲府兵 身租庸調 一切蠲之 以農隙 講閱戰陳 馬畜糧備 六家供之 合爲百府 每府一郎將主之 分屬二十四軍

¹⁰ 432년에 북위 태무제가 북연을 공격해 6개 군민 3만 가구를 잡아가지, 풍홍은 434년에 자신의 막내 딸을 후궁으로 보낼 것을 제안했었다. (資治通鑑 百二十二 宋紀四 元嘉 十一年) 풍홍은 436년에 고구려로 도피했다.

에 평성에 묻힐 수 없게 했다. 한족과의 혼인을 장려 하고, 탁발씨를 원(元)씨로 바꾸는 등 선비 성씨를 한족 성 비슷하게 고치고, 한족의 구품(九品)제 모양 선비 귀족을 서열화 하는 성씨 등급을 규정했다. 그는 심지어 조정 내에서 선비 복장, 선비어의 사용마저 금지시켜버렸다. 이러한 조치를 반대한 태자는 자살을 하게 했다.¹¹ 효문제의 이 모든 정책이, 유연(柔然)을 제압하고 남진을 해, 전 중국대륙을 통일하기 위한 제도적 사전 정지작업이었다고 말하지만, 무모한 부족 전통의 와해 시도는 정복 왕조의 몰락을 촉진한다는 교훈을 새삼 깨닫게 한 것이다.

재 선비화 (Re-Xianbei-ization)

471년에 효문제가 즉위하기 이전의 북위 조정에서는 중앙 고위 관직 중 한족이 차지한 비율이 20.5% 밖에 안되었으나, 471년 이후, 그 비율이 64.8%로 급 상승 했다.¹² 당시 중앙의 근위군과 변경 6진(六鎮)의 선비족 군인들은 훈공에 따라 고위 관료로 나가는 길을 박탈 당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효문제를 따라 낙양에 정착한 탁발선비 고위 귀족들은 나태한 옛 한족 고위관료들의 생활 방식을 흉내 내며 복변을 지키고 있는 동족들을 잊어갔다. 드디어 524년, 북방 국경 6진을 수비하던 선비족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낙양이 함락되고 황태후와 어린 황제를 포함해 2천여 명의 고관들이 살해되면서 10년에 걸친 내란이 계속되었다.

534년, 탁발선비 북위는 회삭진(懷朔鎮) 출신 고희(高歡)의 동위(534-50)/북제(550-77)와, 무천진(武川鎮) 출신 우문태(宇文泰)의 서위(535-56)/북주(557-81)로 갈라져,

¹¹ Klein (1980: 102, 131-2), Eberhard (2005: 130), Barfield (1989: 124-5), Graff (2002: 98), Holcombe (2001: 138) 참조. 효문제의 낙양 천도 이후, 낙양 지역을 본관으로 하는 유력 가문들은 한족이 아니라 본관을 옮긴 102개 성씨, 44개 씨족의 선비 세습 황족-귀족들이었다. 구품 중정제(九品中正制)는 한족 위진(魏晉 220-316) 왕조 이래 각 주-군의 지주-호족 집안을 9품으로 나눈 다음 그 품급에 따라 각급 관리를 선발 임용하는 제도다. 효문제는 한족 지주-호족 출신 사인(中國士人)들의 문벌(門閥)을 네 단계의 행정 단위로 구분하여 사해대성(四海大姓), 주성(州姓), 군성(郡姓), 현성(縣姓) 등으로 나누어 좀더 조직적으로 그 순위를 정해 각급 한족 관리들을 선발했다.

隋書 卷三十二 志 第二十七 經籍一 氏姓之書 後魏遷洛 有八氏十姓 咸出帝族 又有三十六族 則諸國之從魏者 九十二姓 世爲部落夫人者 並爲河南洛陽人 其中國士人 則第其門閥 有四海大姓 郡姓 州姓 縣姓 及周太祖入關 諸姓子孫有功者 並令爲其宗長 仍撰譜錄 紀其所承 又以關內諸州 爲其本望

¹² Johnson (1977: 133)

다시 선비화 과정이 시작된다.¹³ 서위는 북주(北周)가 되어, 577년에 북제(北齊)를 정복하고 579년에 진(陳)의 강북 땅을 차지해, 짧은 기간이나마 북 중국을 재 통일할 수 있었다.

고환은 발해 출신으로, 6대조가 서진의 현도 태수를 지냈고, 그 후 3대가 계속 모용 선비를 섬기다가, 조부 때부터 북위를 섬기면서 회삭진에 정착했다. 우문태의 선조 역시 모용 선비를 섬기면서 현도공에 봉해졌고, 모용보 패망 이후 북위를 섬기면서 무천에 정착했었다. 서위의 우문태는 효문제가 한족식 외자성(單字姓)으로 바꾸어 놓은 것을 본래의 선비식 복성(復姓)으로 환원시켰다. 수 문제 양견의 부친 양충은 보육여(普六茹/P'uliju/버드나무) 씨로, 당 고조 이연의 조부 이호는 대야(大野)씨로 바뀌었다. 관중의 변방한족-용적(戎狄) 출신 부병(府兵)들에게도 선비족 복성 사용을 허용하고, 그들 모두 선비족으로 간주 했다.¹⁴ 우문태는 관중에 정착하자, 무천진부터 자신을 따라 서위/북주 수립에 공을 세운 선비 장수들의 가문들을 새삼 기록-보관하여 관룡(섬서,감숙) 귀족 집단을 공식적으로 출현시켰다.¹⁵

역사가들은 흔히 서위/북주는 탁발 선비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어 명실공히 선비 정복왕조의 후계 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동위/북제 조정은 한족의 영향력이 워낙 커져서 실질적으로 한족 왕조나 마찬가지가 되었다고 말한다. Johnson (1977: 133)에 의하면, 한족 고위관리의 비중이 서위에서는 43.1%로, 북주에서는 16.7%로 급감 했으나, 동위/북제 조정에서는 효문제 당시 모양 그 비율이 3분지2에 가까웠다. 북 중국 평원지대를 차지한 동위/북제 통치자들은 정교한 토지 배분과 현물 징세제도를 구축해, 한족 관료들로 하여금 그 관리를 책임지게 했었던 것이다.¹⁶

그런데 소위 실질적으로 한족 왕조가 되었다는 북제 치하에서 쓰여진 한족 안

¹³ "386-581년 기간 중의 북중국 왕조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은, 유목민들이 중국식 제도와 습속을 채택한다는 뜻으로 'Sinicization (漢化)'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반면, 그 반대 현상을 'Xianbei-ization'이라고 표현한다." Wong (2003: 82) 인용.

¹⁴ Graff (2002: 109, 115), Dien (2007: 9), Twitchett (1979: 98) 참조.

¹⁵ Xiong (2006: 223), Twitchett (1979: 4) 참조.
隋書 卷三十三 志第二十七 經籍二 周太祖入關 諸姓子孫有功者 並令爲其宗長 仍撰譜錄 紀其所承

¹⁶ Wright (1978: 38) 참조. 자치통감(陳紀三 天嘉五年)에 의하면 북제(武成帝)는 564년에 균전제를 실시한 것 같다.

지추(顏之推)의 안씨가훈(顏氏家訓)을 보면, 북제 조정의 봉직하는 한족 관리가 선비 고관들 눈에 들어 출세길이 열리도록 자신의 아들에게 선비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내용의 기록이 나온다: 「조정의 사대부 하나가 나에게 어느 날 '내게는 17살이 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서신과 공문서 작성을 꽤 잘한다. 나는 지금 그에게 선비어와 비파 타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내 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배워 조정의 공경들에게 쓸모가 있게 되면 그들의 덕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아들이 이런 것을 배우기를 원한다'고 말했다.»¹⁷ Schreiber(1949-5: 388)는 "정치적 출세를 위한 기회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선비족 언어를 자신의 아들에게 가르친다는 사실은, 북제 지배 계층인 탁발선비가 조정 내에서 선비어를 사용했을 경우에만 타당성이 있는 얘기가 된다"고 말한다. 북제 군대의 언어 역시 고환이 군사들을 호령 할 때 쓰는 바로 그 선비어 이었다.¹⁸

동위/북제의 시조 고환은, 한편으로 선비족 군사들에게는, "한족 남자들은 너희들을 위해 경작을 하고 여자들은 천을 짜주는, 너희 노예들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그들을 업신여기며 짓밟느냐?" 라고 질책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한족들에게는 "선비족들은 약간의 곡물과 약간의 비단을 대가로 도적들을 소탕해 평화와 질서를 유지해주는 손님들이다; 그런데 왜 선비족들을 그렇게 미워하느냐?"고 말했다 한다.¹⁹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어떻게 서구 사학자들 마저 동위/북제를 한족 왕조로 간주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지 알 길이 없는 것이다.

¹⁷ 齊朝有一位士大夫 曾經對我說 我有一個孩子 已經十七歲了 懂得一些書信 公文的書寫 我教他學習 鮮卑語和彈琵琶 只要稍稍 掌握一些 就可以用這些本領去 為公卿們效力了 沒有不受寵的道理 這也是一件 很重要的事情

¹⁸ Schreiber(1949-55: 387-8)의 수서경적지(隋書經籍志) 선비호령(鮮卑號令) 인용. 탁발 선비의 언어는 거란어의 직계 조어(祖語)이었을 것이다. Janhunen (1996: 190-191) 참조.

¹⁹ 北齊書 卷一 帝紀 第一 神武上 姓高名歡...渤海蓀人也 六世祖...晉玄菟太守...生... 三世仕慕容氏 及慕容寶敗...率眾歸魏 為右將軍...生...坐法徙居懷朔鎮...生皇考...神武 既累世北邊 故習其俗 遂同鮮卑 資治通鑑 卷一百五十七 梁紀十三 高祖武皇帝十三 大同三年九月 [537] 歡每號令軍士...其語鮮卑則曰 漢民是汝奴 夫為汝耕 婦為汝織...汝何為陵之 其語華人則曰 鮮卑 是汝作客 得汝一斛粟 一匹絹 為汝擊賊 令汝安寧 汝何為疾之

Motivational Episode

북제 탁발선비(拓跋鮮卑)족의 풍속(鄉下風俗)

안씨가훈(顔氏家訓)의 저자 안지추(顔之推 531-91?)의 선조(顔송 c.260-350)는 북중국 한족이지만 동진(317-420)을 세운 사마예(司馬睿 r.317-22)를 따라 남쪽으로 이주해 교민(僑民)이 되었다. 안지추 자신은 남조 양(502-57) 무제(r.502-49) 때 수도 건강(建康) 남쪽에서 태어났다. 유학(儒學)에 조예가 깊어 어린 나이에 벼슬(散騎侍郎)에 올라 사서 편찬을 했다. 554년, 서위(535-56) 침공군의 포로가 되어 홍농(弘農)에서 이현경(李顯慶) 대장군의 형 아래서 일을 하다가 북제(550-77)로 탈출해 황문시랑(黃門侍郎), 평원태수(平原太守)를 역임했다. 577년에 북제가 북주(557-81)에 정복당하자 북주에서 어사상사(御使上士)를 지냈고, 수(隋)의 천하통일 후 학사(學士) 노릇을 했다. 다음은 소위 한화가 심했다는 북제의 얘기다.

『남중국 강동(江東)의 부녀자들은 별로 바깥과 교류를 하지 않는다(略無交遊). 북 중국 제(齊) 나라 수도 업(鄴)의 풍속을 보면, 부인들이 가사를 전담할 뿐 아니라(專以婦持門戶), 소송을 걸어 곡직(爭訟曲直)을 가리고, 손님을 초청하고 또 초대에 응하기도 한다(造請奉迎). 수레를 몰고 가는 부인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며, 관청에는 비단옷을 입고 아들을 위해 관직을 구하며(代子求官),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여인들로 가득하다. 부부간에는 서로 “너”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倡和之禮或爾汝之). 이는 바로 탁발선비족의 풍속이다(此乃恆代之遺風乎!)』 대(代)는 탁발선비 본향인 대군(代郡), 항주(恆州)는 북위 수도가 위치했던 평성(平城/大同) 지역을 말한다.

안지추는 계속 말한다. 『하북(河北)의 부인들은 길쌈, 비단 짜기, 바느질, 자수 등의 솜씨가 남 중국 강동 부인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남 중국에서는 사족인지 서인(南方士庶)인지는 몇 마디 들어 보면 금방 알 수 있으나(數言可辨) 북 중국에서는 담장을 사이에 두고 말 소리만 들어 보면 하루 종일 들어보아도 그 말하는 사람이 사족인지 서인인지 구분을 하기가 힘들다. 남방 말은 오월 방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而南染吳越), 북방 말은 이민족 말과 뒤범벅이 되어있다(北雜夷虜).』

Appendix 4. 탁발선비 북위 (拓跋鮮卑 北魏)

거의 모든 탁발선비 부족들은 부대 단위로 조직되어, 할당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황제 직할 또는 국경 수비 공동체의 구성원 역할을 하였다. 대규모 기병을 보유했던 북위는 몽골 초원시대 깊숙이 원정군을 보낼 수 있었다.²⁰ 한족 왕조들은 유목민의 침략을 막기 위해 장성을 쌓거나, 선물과 교역 특혜를 제공하거나, 대규모 공격을 반복하는 정책 중 하나를 택했었다. 그러나 북 중국을 점령한 서진 왕조들의 전략은, 적대적인 유목민 부족장들과 혼인 정책을 통해 인척 관계를 맺어 자기편으로 만들거나, 적대적인 부족들이 합심하여 동맹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경쟁 관계에 있는 부족장들을 지원하거나, 성장 가능성을 보이는 부족 세력을 초장에 깨 버리는 전략을 택했다. 만주족 통치자들은, 몽골초원의 실상을 완전히 파악하기 때문에, 초원시대의 사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다. 만주족은 몽골초원의 적을 단순히 패배시키기보다는, 주민과 가축들을 한꺼번에 모두 빼앗아 감으로서 유목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기반 자체를 붕괴시키려 했다.²¹

439년에 북 중국을 통일한 북위 태무제(太武帝 r.423-52)가 일찍이 429년에 오르곤강 유역의 유연(柔然) 제국을 정벌할 때 기록된 말이다: “한족들은 보병이고 우리는 기병이다. 망아지나 암소 떼들이 호랑이나 늑대 무리를 어찌 당할 수 있겠는가? 몽골초원의 유연 부족들은 여름 철에는 북쪽에서 방목을 하고, 가을에는 남쪽으로 내려오며, 겨울이 되면 우리 국경을 침범한다. 우리는 그들이 여름철에 목초지에서 방목을 하고 있을 때 공격을 하면 된다. 숫 말들은 암 말을 쫓아다니고, 암 말은 새끼들 돌보기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말들은 모두 쓸모가 없게 된다. 그때 우리가 덮쳐서 그들을 목초지와 물가에서 쫓아내면, 며칠도 안돼서 모두 포로가 되거나 붕괴될 것이다.”²²

효문제의 아버지는 수도승이 되기 위해 왕위를 버릴 정도로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북위의 지배자들은 애당초 유교적 편견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이 없이 불교를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으며, 그리스식 간다라 불교 예술에서 영감을 얻어 그토록 신비한 모습의 거대한 (雲岡, 龍門) 불상 조각 작품들을 만들었다. 당시 선비족들은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북부에 위치했던 옛 박트리아와 교류가 있었고, 로마 통치하의 중동과 교역을 했으며, 초기적 불상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와도 접촉이 있었다. 중국대륙 북부의 탁발선비족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보면, 시베리아와 몽골초원 유목민들의 초기 예술적 전통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³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섬서성에서 발굴된 갑옷을 입은 말 모양의 토기를 보고, 고구려 토기라고 생각할 것이다. 특히 호호호트(呼和浩特)에서 출토된 말과 마부의 토기는 신라 토기로 오인될 정도다.

동아시아 역사: 왜곡(歪曲)의 시정(是正) ©2012 홍원탁(洪元卓) 서울대 명예교수 (<http://www.HongWontack.com>)

²⁰ Barfield (1989: 118-119)

²¹ Barfield (1989: 112, 124)

²² Grousset (1970: 62-63) 인용.

²³ Watt, et al.(2004: XIX) 인용.